

'우리글 노래'를 짓고서

(동기와 목적)

장 덕 진

저작권은 <http://www.hangeulstudy.com/>
[세종규칙 한글] 장덕진에게 있음

초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에 이른 오늘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옛 속담을 상기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얼마 전, 어느 명문 여고 신입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글 낱자 [자모]의 순서와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한 학생이 87%나 된다는 신문 보도는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중학교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1학년의 경우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한 반에 2~3명이나 되어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이 10%가 넘는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었다.

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왔다. 영어는 '에이 비 시 노래'가 있어서, 적어도 알퍼베트 스물여섯 자 정도는 알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데 비해, 한글은 서양의 알퍼베트와 똑같이 음소문자이지만, 운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한글은 수많은 음절자 (약 1259자)를 갖고 있고, 그 음절.자형 상호간에 체계성도 있다. 그런데 기

본 음절이 50개도 되지 못하며 체계성도 없는 일본 글자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채 지도해 왔다. 지금까지 한글은 기본 낱자도 모르고 문장을 무조건 읽어서 익히는 서구식 방법인 문장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글을 지도하고 배워 왔으며, 또 낱말 딱지에 의한 시각 어휘 개발의 방법으로 한글을 지도해 왔다.

다만, 새 교과서에서는 부분적이거나 기본 음절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도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

누구든지, 외국 사람들도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쓰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첫째 한글의 당소리 열 녀자와 홀소리 열 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조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둘째 한글의 기본 낱자 스물 녀자의 순서와 이름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셋째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알기 쉬운 글임을 깨우쳐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임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넷째 한글의 우수성에 긍지를 갖고 즐겨 부르며 국어를 순화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훈민정음을 쉽게 풀이하어 '우리글 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었다.